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심동섭 KIA 불펜 '비밀병기'로 뜬다

심동섭

## 입대날짜 기약없어 '그라운드 복귀' 궤도수정

좌완 심동섭이 KIA 불펜의 비밀병기로 뜬다.

1·2군 선수단이 미국과 중국으로 스프링캠프를 떠나면서 텅빈 무등경기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재활군 선수들이 있다. 그 속엔 투수 심동섭도 있다.

지난해 7월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심동섭의 올 시즌 구상은 '군대'였다. 재활기간을 고려해 군복무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입대날짜가 기약없이 밀리자 '그라운드 복귀'로 궤도를 수정했다.

심동섭은 프로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11년 '특급 무기' 포크볼을 앞세워 KIA 불펜의 샛별로 떠오른 인물이다. 57경기에 나와 2.77의 방어율로 3승7홀드2세이브를 기록했다. 이해 8월9일 LG와의 경기에서는 4이닝 7탈삼진 퍼펙트쇼를 선보이며 '심동섭'이라는 이름을 야구팬들에게 확실하게 알렸다.

**팔꿈치 부상 재활훈련**
**그라운드 생각 간절해**
**5~6월 마운드에 설것**

지난해에도 KIA 불펜의 필승조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상이 문제였다. 스프링캠프에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던 심동섭은 부상 여파로 10경기에 나와 6.23의 방어율로 2패1홀드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인대 손상으로 시즌 중반 수술대에 올랐다.

심동섭은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좌완 불펜. 좌완과 불펜은 KIA의 우승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취약점이다. 심동섭이 마운드에 가세한다면 그만큼 불펜에 힘이 실린다.

재활페이스는 빠르다. 기본적인 재활과정을 끝낸 심동섭은 공을 만지고 있다. 30m 캐치볼을 소화하고 있고 돌발변수가 없다면 늦봄 실전 무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심동섭은 "기본적인 재활은 다 마무리 했다. 재활과정이 지루하기도 하고, 운동하는 것도 힘들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답답했다. 시즌이 시작되고 선수들 경기하는 것을 보면 더 그라운드 생각이 간절할 것 같다"며 "요즘 캐치볼을 하고 있다. 5~6월 정도면 경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활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세홍 트레이너와 포수 송산, 투수 이범석은 심동섭의 멘토다.

심동섭은 "고등학교 때도 부상으로 고생했는데 어려울 때 주변에서 많이 잡아주고 도움을 줬다. 지금도 주변에서 많은 힘을 주고 있다"며 "송산 선배는 힘들어 하면 엄하게 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운동을 하게 도와준다. 이범석 선배도 팔꿈치 부상이 왔다가 어깨까지 아팠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해주면서 재활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심동섭의 올 시즌 목표는 마운드다. 마운드에 올라가 공을 던지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심동섭은 "선동열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앞에서 잘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내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아파서 그러지 못했다"며 "떠나보니 마운드 생각이 더 간절하다. 재활 잘하고 돌아가서 진짜 내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날두 골인, 공은?** 레알 마드리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31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2012-2013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4강 1차전에서 헤딩슛을 실패한 후 골대에 주저앉아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메시·호날두 기죽인 19세 바란의 '반란'

## 바르셀로나·레알 '엘 클라시코' 1-1 무승부

메시도 호날두도 아니었다. 2013년 첫 '엘 클라시코' 주인공은 약관도 안된 19세의 라파엘 바란이었다.

스페인 프로축구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지난 31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2012-2013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준결승 1차전에서 맞붙어 1-1로 비겼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100년 축구전쟁' 전적은 87승 46무 86패로 레알이 1승 앞선 상태. 2012-13시즌엔 네 차례 맞대결을 펼쳐 1승 2무1패로 팽팽했다.

준결승 1차전을 앞두고 팬들의 관심은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대결에 쏠렸다. 메시는 엘 클라시코 통산 17골로 레알의 전설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의 최다 골 기록(18골)에 도전하고 있었고, 호날두는 엘 클라시코 역대 최다인 6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이었다. 지난 주말 프리메라리가 21라운드 경기에서 호날두는 해트트릭을, 메시는 4골을 폭발시켜 기대감을 한층 증폭시켰다.

두 팀은 초반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전반 1분 만에 프리킥을 얻어낸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가 오른발로 감아 차 공격에 시동을 걸었다. 호날두는 전반 16분 후 우측 라인 깊숙한 곳에서 카림 벤제마가 띄워 준 공을 달려들어 헤딩을 시도하며 바르셀로나의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다.

바르셀로나는 레알의 압박수비에 막혀 특유의 점유율 축구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골을 먼저 터뜨린 쪽은 바르셀로나였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5분 레알 수비진의 걷어내기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 페널티 아크 부근에 있던 메시가 흐른 볼을 잡아 우측에서 달려들던 파브레가스에게 연결했고 파브레가스는 오른발로 가볍게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경기에서는 종종 깜짝스타가 탄생하는 법. 19세의 라파엘 바란이 그야말로 그라운드의 반란을 일으켰다. 바란은 후반 36분 메수트 외질이 우측에서 올린 크로스를 타점 높은 헤딩골로 연결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바란은 이날 레알의 센터백 라모스와 페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불가피해 '대타'로 그라운드에 섰다. 그는 과감한 태클과 191cm 76kg의 체력에서 나오는 몸싸움,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등으로 최고의 수비능력을 보였다.

바란은 전반 24분 골키퍼의 전진으로 텅빈 골대를 향한 사비의 슈팅을 골라인 앞에서 걷어냈고 후반엔 파브레가스의 단독 찬스를 태클로 끊어냈다. 또한 메시와 이니에스타의 돌파를 봉쇄하는 등 이날 최소한 3골을 막아내고 동점골까지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바란은 프랑스 'RC 랑스' 유스 출신으로 일찌감치 전설적인 수비수 로랑 블랑의 후계자로 불렸다. 레알은 2011년 지네딘 지단의 추천으로 당시 만 18세에 불과했던 그를 영입했고 2년도 안 돼 엘 클라시코에서 톡톡히 재미를 봤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27일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프누에서 2차전을 치른다.

/유제관기자 jkyou@kwangju.co.kr

# 전남 드래곤즈 태국 전훈서 '龍꿈'

## 올 시즌 목표는 FA컵 우승
## 방콕U와 연습경기 5-1 대승

전지훈련 중인 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30일 방콕 대학교 운동장에서 방콕 유나이티드와 연습경기를 하고 있다. 〈전남 드래곤즈 제공〉

전남 드래곤즈의 태국 전지훈련이 무르익고 있다.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달 18일 태국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전술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든든한 수비수 윤석영이 캠프 도중 퀸스파크레인저스(QPR)로 이적하면서 전력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지만 2013시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30일 방콕 유나이티드와의 연습경기에서는 5-1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살리기도 했다.

전남은 방콕 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호주 국가대표인 코니가 2골을 넣는 활약을 하면서 5-1 승리를 거뒀다. 방콕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태국 1부리그(2부리그)에서 1위를 차지해 이번 시즌부터 태국 프리미어리그(1부리그)로 승격된 팀이다.

4-4-2 포메이션으로 나선 전남은 1쿼터(45분) 5개의 슈팅 중 4개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 경기시작 4분 만에 박준태의 선제골이 나왔고, 코니가 1쿼터 13분과 15분 중거리슛과 헤딩슛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3-0을 만들었다. 이종호도 38분에 득점포를 가동시켰다. 전남은 2쿼터(35분)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3쿼터(35분)에 막내 이슬찬이 팀의 5번째 골을 터트렸다.

하석주 감독은 "골결정력이 좋았던 점이 고무적이다.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것이다"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강조했다.

이적생들의 '전남화'는 남은 캠프 기간의 숙제다.

하 감독은 "전반적으로 공격과 수비 조직력이 좋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 팀에 합류한 이적생들이 원소속팀의 전술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며 "남은 기간 훈련을 하면서 우리 팀에 더 녹아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7일 귀국하는 전남은 광양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며 올 시즌을 대비한다. 상위리그 진출과 FA컵 우승을 목표로 한 전남은 3월 2일 오후 3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내가 복싱 국가대표로 출전하면 안될까요?"

### 배우겸 복서 이시영 인천시청 복싱팀 입단

배우 이시영(31)이 인천시청 복싱팀에 입단,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도전을 향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시영은 지난 31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입단식에서 송영길 시장으로부터 임명장과 함께 유니폼, 글로브까지 받고 인천시청 복싱팀의 정식 일원이 됐다.

이시영은 이날 여배우라는 화려함을 내려놓고 화장기 없는 민낯에 머리를 질끈 동여 묶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입단식에 임했다.

이시영은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선수가 그렇듯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시영은 인천시청 복싱팀과 함께 체계적인 훈련을 하면서 이르면 4월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